

현대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남 미 현* · 박 명 희**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졸업* ·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rottesque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ed on since the 1990's-

Mi-Hyun Nam* · Myung-Hee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onkuk University**

(2004. 8. 6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Grottesque in Contemporary Fashion. The study selected the 1990's or after fashion material by the material of both prêt-à-porter collection and haute couture collection based on Europe.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of grottesque have been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scholars of the Post Modernism era.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devilism creates shocking and destructive cruelty and fear by using frightening object and mysterious and devilish motif which symbolize the death of fashion
- Hatred produces physical destroy of human body, anatomical expression inside human body, cruelty by naked sex expression, pains, cruel treatment, disillusion and unpleasantness, which have been caused by the disturbance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of the society, and is said to be a kind of self-confession against dislike and fear of the disclosure of human existence.
- Playfulness distorts and exaggerates clothes and human body forms, and produces abnormality and mystery because of vague sex identity. The playfulness of fashion can open fixed and closed world and lead it flexibly.
- Heterogeneity is divided into both primitiveness and virtuality. The primitiveness distorts or transforms human body through the human body decoration of primitive race, and expresses a grottesque form combining human being and other animals. It gives a question to the existence of alienated and suppressed life through the world, in which everything is mixed and not separated. The virtuality introduces not only cyborg form combining human being and machines but also state of the art technology factors, so that it emphasizes non-mechanical and non-human grottesque images.

Key words : grottesque(그로테스크), devilism(악마성), hatred(혐오성), playfulness(유희성), heterogeneity(이질성), primitiveness(원시성), virtuality(가상성)

I. 서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잔인하고 파괴적인 인간 본능의 모습들을 과격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비정상적이며, 과격하며, 혐오스러운 반면 동시에 재미와 웃음이 섞인 그로테스크한 현상은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현상 등 현대 사회의 현안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로마 초기의 장식물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그로테스크는 16세기 매너리즘시대, 프랑스혁명기, 낭만주의, 19세기말, 20세기말 등 사회가 혼란 되고 고전적인 미의식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에 득세하여 나타났다.

복식에서 그로테스크는 오래 전부터 왜곡, 과장, 축소, 변형 등 여러 조작을 통하여 표현되어왔으며, 이러한 복식은 패션(Fashion) 혹은 패드(Fad)로 이어져왔다. 특히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이후 빈번히 나타나며 더욱 더 충격적인 표현을 시도해왔다.

복식에서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연구는 최정화¹⁾와 김유경²⁾의 연구가 있고, 그로테스크한 표현의 특성으로 경계의 모호성과 신체의 폭력성으로 분석한 박은경³⁾의 연구가 있지만,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그 특성 정립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파악한 뒤 현대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재정립하고, 오늘날 패션에서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와 현대사회의 제 가치관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래의 인간의 모습을 조망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와 관련 패션지의 사진과 인터넷 등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복식은 유럽의 오프꾸뛰르(haute couture) 컬렉션과 프레타쁘르메(prêt-à-porter) 컬렉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그로테스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는 '기묘한', '이상한', '공상의'를 뜻하는 것으로 그 어원은 *grotta*(cave: 동굴, 발굴)+*-esco*(esque: 형용형)의 여성형인 *grottesca*이다.⁴⁾ 고대 로마 시대에 유행한 인간과 동물, 꽃, 과일, 잎사귀, 소용돌이 등이 복잡하게 얽혀 공상적이고 기묘한 혼성을 이룬 장식문양을 말한다.<그림 1> 실제로 1480년경 고대 로마 Nero 황제의 유적이거나 Titus 황제의 온천장 유적에서 발굴된 벽화에서는 동물계·식물계·인간·반인반마(半人半馬)·반인반수·목신(木神)을 포함한 신화적 형상이 융합된 형태⁵⁾를 보이고 있다.

16세기 경 프랑스의 라블레(Rabelais)는 이 말을 신체부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여 그로테스크가 문학과 미미술 분야로 확대되었다. 18세기에 영국과 독일에서는 캐리커처어(caricature)와 관련됨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부자연스러운 것', '부조리'등을 의미하였으며 그로테스크가 조롱과 배격의 대상으로⁶⁾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림 1> 그로테스크문양, 1607.
김성철(1998). 미술대사전 1-용어편.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p. 67.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란 양면성을 지닌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전개되었다.⁷⁾ 특히 빅토르 휴고(Victor Hugo)와 체스터튼(Chesterton)은 그로테스크를 공상보다는 사실에 관계시키는 한편, 그것을 숭고와 대비되는 미학적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그로테스크가 갖는 무한한 다양성을 강조하였다.⁸⁾

20세기에 이르러 1957년 독일의 비평가 카이저(W. Kayser)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인간 소외와 공포, 비극을 강조하는 카이저의 정신분석학적인 언캐니(Uncanny) 그로테스크를 주장하였다.⁹⁾ 이것은 물질적 신체, 이중적, 왜곡, 변형, 비천함을 주장하는 바흐친(M. Bakhtin)의 사회주의적인 카니발(Carnival) 그로테스크 이론과 함께 양자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며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그로테스크 이론에 대한 양 축을 이루고있다.¹⁰⁾

이와 같이 그로테스크는 의미자체가 고유한 형태가 없는 개념이며, 고정되기보다는 부단한 진행의 과정¹¹⁾에 있기 때문에 그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로테스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한다면 그로테스크는 모순과 갈등의 원리로서 이질적이고 모순된 요소들을 포괄하며, 극단적인 과장이나 왜곡의 수단을 통하여 부정적 현실의 드러나지 않은 실상을 포착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그로테스크의 형성 요인

프로이트(S. Freud)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에로스:eros)'과 함께 '죽음의 본능(타나토스: thanatos)'이 잠재되어 있으며, 삶의 현상은 에로스 와 타나토스의 협력작용 및 대립작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Thanatos)으로 인하여 섬뜩한 오브제나 모티프로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로테스크는 중세의 기독교와 관련되어, 복음서 필사본에는 그로테스크한 그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마를 도구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또한 중세 후기 그노시스주의자(gonosticism)¹²⁾들은 신체를 조작하거나 손상을 통하여 신체를 신성한 존재로 승화시켜 가는 카타르시스의 수단으로 보았다.¹³⁾



<그림 2> Martyrdom of Isaiab,
Ruskin Bible, 1250.
Adams, J. L. & Yates, W. (1997).
The Grottesque in Art Literature.
Eerdmans, p. 130.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문화에 증말론, 회의론, 허무주의 등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되는 세기말 현상은 그로테스크의 형성 배경이 된다. 19세기말에는 데카당스, 유미주의, 허무주의 등 세기말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아 죽음과 관련된 악마주의적 모티브에 많은 유혹을 느꼈다.¹⁴⁾ 20세기말에는 AIDS 문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오존층 파괴(Depletion of the Ozone Layer),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같은 주로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원인으로 죽음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¹⁵⁾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증말론'과 함께 등장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법과 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여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피하려는 군중 심리를 보여주었다.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추는 사회가 부패하고 불안해질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추의 미



<그림 3> Drag Queen, 1984.
Hastreiter, K. (1999). From AbFab to zen : PAPER's guide to pop culture, N.Y.: Paper Pub. Co, p. 184.



<그림 4> Björk의 뮤직비디오,
『All is full of Love』, 1999.
[http://www.freedb.org/freedb_search_](http://www.freedb.org/freedb_search_fmt.php?cat=rock&id=4f067906)
[fmt.php?cat=rock&id=4f067906](http://www.freedb.org/freedb_search_fmt.php?cat=rock&id=4f067906)

학을 통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운 삶의 모순을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로 폭로한다. 그로테스크는 표현주의, 다다와 초현실주의, 팝아트, 페미니즘 등 다양한 예술사조아래 표현되어왔으며, 표현 영역에 자극제의 역할을 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 윤리의식을 지켜나가는 지배문화에 대해 하위계층·동성애자·청년집단 등의 하위문화 집단들이 지니는 정치적·이념적인 저항과 불만, 그리고 특정한 정체성이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배경이 된다. 댄디(Dandy), 모즈(Mods), 히피(Hippies), 펑크(Punk) 등의 하위문화와 팝 가수들과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패션은 계급과 성, 인종적 정체감에 대한 저항의 표시¹⁶⁾였으며, 1970년대의 새로운 이론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게되면서 게이(gay)와 레즈비언(lesbian) 등의 성적 특성이 모호한 집단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그림 3>

현대사회에서 인간신체를 둘러싼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신체의 변형을 가능케 하며,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식수술, 성형수술 등은 신체 변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게놈(genome) 연구 등으로 인해 인간의 신비가 벗겨지고 해체되는 상황¹⁷⁾은 신체를 둘러싼 실제와 가상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테크놀리지의 발달이 그로테스크 형성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보그로 분장한 Björk(Björk)의 모습<그림 4>처럼 미래에 우리는 더더욱 인공적 신체부분을 가질 것이고, 육체는 완전히 가상 신체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그로테스크의 형성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류의 역사 속에 무성하게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시화되어 현실의 숨겨진 이면을 충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삶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Ⅲ. 그로테스크의 특성

그로테스크의 개념은 학자들간의 견해차로 그 개

넘자체가 혼란스럽고, 전체적인 구조를 밝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대한 논의 또한 난해한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찾고자 한다. 대표 학자인 카이저(W. Kayser), 바흐친(M. Bakhtin), 톰슨(P. Thomson), 톰젠(C. W. Thomsen)의 그로테스크의 개념들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다.

1. 악마성

카이저(W. Kayser)에 의하면, 그로테스크는 세상의 악마적 요소를 통제하여 쫓아내려는 시도로서 그로테스크의 측면 중 악마적이고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예술의 불합리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영역을 묘사한다고 하였다.¹⁸⁾

그의 그로테스크 이론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째, 그로테스크는 죽음의 공포 뿐 아니라 생의 공포를 표현한다고 보았다. 그로테스크를 인간 실존과 관계시키고 소외된 비인간적 파워, 적대적, 소외적, 비인간적인 특성을 지닌다. 둘째,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나타나는 고통과 혼합되는 폭소는 조소와 풍자의 성질을 획득, 결국은 악마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의 그로테스크 세계는 음울하고 공포적인 것이 된다.¹⁹⁾ 즉, 언캐니(uncanny) 그로테스크를 설명하는 그의 이론은 그로테스크의 양면성과 소외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공포와 관련되었다.²⁰⁾

바흐친(M. Bakhtin)의 카니발(carnival) 그로테스크는 중세의 카니발의 민족적, 민주적 특징을 강조한 것으로 유토피아 이상주의와 삶의 요소를 품고 있다.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서 폐쇄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카니발 기간동안은 술과 고기를 먹으며 가면을 쓰고 행렬을 하거나 즐길 수 있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보네쯔카야(Бонецкая Н.К.)는 바흐친(M. Bakhtin)철학의 핵심이 전통적 가치인 개성, 존재, 주체 등의 개념을 파괴하고 의

심하는 반(反)형이상학과 존재의 탈주체화의 비밀스러운 음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블레(Rabelais) 소설의 목적은 현대의 포스트 기독교적 인간을 고대의 이교도적 세계 감각에 관여시키는 것²¹⁾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기독교적 가치를 뒤집어버리고 조롱하는 반교회가 되며, 바흐친(M. Bakhtin)의 라블레(Rabelais)론은 이교를 포교하는 악마주의로 해석되어진다.²²⁾

2. 혐오성

그로테스크한 일그러뜨리기는 끔찍하고 우스울 뿐 만 아니라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적이다. 그로테스크에 직면하게 되면 이미 알려진 방법에 의해 상황이 해명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데, 이때 어떤 다른 적당한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대지평의 파괴와 보존이 팽배한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테스크는 매혹적이며 동시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²³⁾

바흐친(M. Bakhtin)은 비천함과 관련된 파편적 신체, 신체의 물질성을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시각에 부합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연회 이미지와 결부되는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음식의 메타포(metaphor)로서 배설과 직결되며, 모두가 고결하고 흠 없는 고전 신체에 대립되는 비천한 신체이다. 배설물과 분비물, 또한 신체적 폐기물로서의 신체는 비천함을 의미하며 신체의 비천함은 혐오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임신, 출산, 노파와 같은 여성적, 모성적인 이미지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전형적 이미지로서, 신체적으로 여성 혐오증을 조장하는 그로테스크함이 깃들어 있다.²⁴⁾

3. 유희성

그로테스크에는 끔찍한 또는 전율을 일으키는 요소 뿐 만 아니라 희극적 요소도 내재해 있다. 비유이나 차원을 환상적이고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비틀음으로써 전율 뿐 만 아니라 웃음도 유발되는 것이다. '관찰자를 경악케 하고 동시에 웃게 만드는 섬뜩함과 가스소름이 하나가 된'²⁵⁾ 일그러진 묘사가 그로테스

크한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하나의 미학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풍자라는 구체적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즉 기괴함, 섬뜩함, 무시무시함 등에 회극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 그로테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주로 낭만주의 시각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는 그로테스크가 내포하는 풍자성, 전복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섬뜩함과 함께 회극성은 그로테스크 미학을 성립시키는 가장 필수적 요소들²⁶⁾ 중의 하나이다.

바흐친(M. Bakhtin)의 카니발적 웃음의 개념은 스탈린 시대에 변창했던 왜곡된 민중문화의 개념, 즉 위에서부터 명령되었고, 실제로 공식적인 문화에 대한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그 문화에 대한 전복적인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⁷⁾

본래 카니발의 민중 축제적인 웃음은 공포를 웃음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카니발의 풍부한 해학과 풍자는 유희적 성격을 가지며, 인간의 억압된 본성과 욕망이 일시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크라이머(Thomas Cramer)²⁸⁾는 회극성(komik)을 이루고 있는 대비가 일그러지거나 이성적으로 파악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로테스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식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회극성은 환상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으로 전도되고 소외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면 회극성은 비이성적이고 끔찍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리하여 그로테스크는 속성상 양극에 우스운 면과 무서운 면을 동시에 지니며 서로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유희는 환상과 탈환상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유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로테스크는 과장된 코믹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안의 감정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코믹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불안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톰슨(P. Thomson)²⁹⁾은 그로테스크의 회극적이며 끔찍스러운 것은 서로 혼합되어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보았다. 웃게 되는 반응이라 함은 즐겁고 유쾌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가진 규칙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현상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서 비롯

된다. 이러한 갈등은 웃는 동안 갈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갈등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해소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양면성을 갖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스움은 진지함의 결여가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진지함의 결여는 또한 유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³⁰⁾

4. 이질성

툰젠(C. W. Thomsen)³¹⁾에 의하면 그로테스크는 왜곡과 낯섦의 원리라고 하였다. 그로테스크는 이질적(heterogener)인 부분(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 인간적인 것, 메카니즘적인 것, 기계적인 것)들을 결합·융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개체가 되게 함으로써 익히 알려진 것을 낯설게 한다. 보편적으로 승인된 규범들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거나 전도시켜서 이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어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에 이르도록 자극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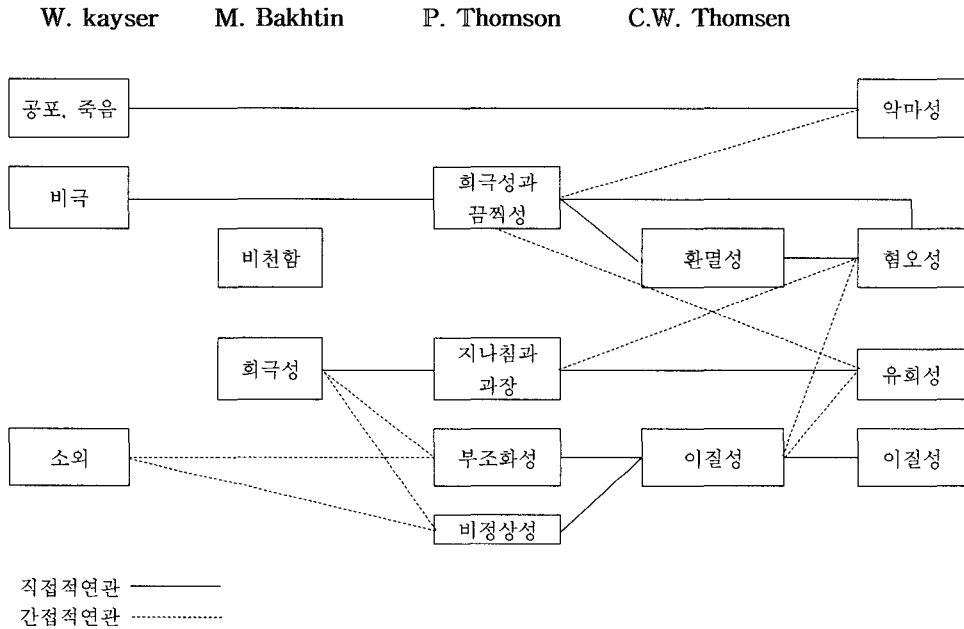
즉, 그로테스크는 다른 많은 범주들과 부분적으로 교차하는 다층적인 미적 범주인 것이다.³²⁾ 본래 그로테스크의 유래가 로마 유적에서 보여진 동물계·식물계·인간·반인반수·목신(木神)을 포함한 신화적 형상이 융합되어 복잡하게 얽혀 공상적이고 기묘한 혼성을 이룬 것을 대변한 것이다. 이 다층적인 미적 범주는 그로테스크의 초시대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카이저(W. Kayser)는 그로테스크를 나타내는 모티브의 예로 '인형, 기계적인 인간, 꼭두각시로 경직된 신체, 무표정한 얼굴과 가면으로 경직된 얼굴'을 들고 있다. 기계적인 것과 유기체적인 것이 결합되는 특이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균형과 기이함을 그로테스크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혼합형태의 모습들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인간과 동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지만, 혼동상태에서는 질서를 위협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즉 혼합 형태 속에는 질서와 위협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툰슨(P. Thomson)이 주장하는 그로테스크의 부조화도 이러한 이질적인 것의 혼합,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혼합³³⁾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학자들이 주장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서로의 연관성을 표시하였다.

<표 1> 그로테스크의 특성



IV. 현대 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1990년대 이후 패션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과 AIDS 문제, 환경 파괴, 전쟁, 집단적 죽음 등 지구의 종말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였다. 이 같은 사회 환경적 불안요소속에서 패션에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발상이나 독특한 창의력으로 과거보다 더욱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앞에서 분석된 그로테스크의 특성인 악마성, 혐오성, 유희성, 이질성으로 분류하여, 1990년 이후 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1. 악마성

카이저(W. Kayser)에 의하면, 그로테스크는 세상의 악마적 요소를 통제하여 쫓아내려는 시도로서 그로테스크의 측면 중 악마적이고 공포스런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예술의 불합리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묘사한다고 보았다.³⁴⁾ 이로 인하여 그로테스크는 현대 시대의 문화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불안이 가장 잘 표명되는 것은 악마가 등장하는 대중문화의 공포물 장르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20세기 말 '에이리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등에 이르기까지 공포물들은 그 시대적 사회적 모순과 불안을 표현하는 문화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포물 영역에서 인간은 선으로, 괴물은 악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악마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각시키

고 인간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악은 기존 문화 바깥에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 문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비정상, 선/악, 합리/비합리, 이성/본능 등의 이원론적 범주에서 부정적인 용어로만 개념화 할 수 있었던 악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표면에 떠오를 회귀적 폭력이라 볼 수 있다.



<그림 5> McQueen, '97FW
<http://www.firstview.com/WRTWfall97/ALEXANDER/P051.html>

<그림 6> Arkadius, '01 S/S
<http://www.firstview.com/WRTWspring2001/ARKADIUS/P106.html>

1970. 80년대 아이런 메이든(Iron Maiden)을 중심으로 한 영국 헤비메탈 그룹들은 영국식 보수주의에 반기를 들고, 아웃 사이더적인 인간의 본성을 밖으로 표출해 보임으로써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이들의 시각적 이미지는 악마, 해골, 피, 십자가, 죽음 등 극도로 공포감을 주는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것이었다.³⁵⁾

이러한 문화는 최근 영국 디자이너들에게 이어져 괴기스러운 공포의 패션 미학이 컬렉션에 활발하게 표현되고 있다. 90년대 말에 세기말적 현상의 하나로 윌리도덕의 타락 현상과 그에 따른 성도덕의 문란으로 향락주의가 만연하였으며, 70년대 말 영국에서 비롯되어 퍼졌던 펑크 패션의 리바이벌이라 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애그로 패션(aggro fashion)

이나 오싹한 뉴로틱 패션(neurotic fashion)³⁶⁾이 자주 등장하였다.

그 예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97/98 F/W에 악마를 상징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보여주었다.<그림 5> 머리에 난 뿔은 악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음란한 신으로 언급되고 있는 Baal신의 마크로서, 고대 이방 종교를 숭배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³⁷⁾ 이처럼 오늘날 그로테스크 복식에서 메이크업 스타일은 의상의 파격적미를 연출하는 것 이상의 효과적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

런던의 신예 아카디우스(Akardius)는 피로 물든 의상에서 신체내부의 장기를 꺼내 보여주는 듯한 충격적인 의상을 발표하였다.<그림 6> 이처럼 복식에서 그로테스크는 섬뜩한 오브제나 문신, 죽음을 상징하는 모티프를 사용하여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벨기에 디자이너인 주지 퍼슨(Jurgi Persoons)의 '97 S/S 컬렉션 초대장은 공포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하고 피로 쓴 것처럼 제작되었다.<그림 7> 엽기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올라 각종 광고 캠페인과 마케팅에 응용되고 있는 현재의 문화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식에 표현된 악마성은 창백한 화장, 뾰족한 머리형, 검은 혹은 어두운 색의 드레스, 은색 악세사리, 드라큘라, 마녀, 해골, 악의 전사 등 죽음이나 질병 또는 어둠을 나타내는 악마적인 모티프로 공포스러운 기괴미를 나타낸다. 색채에서는 피를 나타내는 붉은 색과 검정 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부정적 표현으로 어둠과 관련된 검은 색을 사용하여 마귀나 요술사 또는 사탄의 섬뜩하고 괴이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표현하고, 슬픔, 음울, 비참함, 죽음, 죄악, 타락, 애도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악마성은 사회적 위기의식, 좌절감 등 허무주의 의식과 행동으로 맞물려 병적인 마음이 일그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세기말적인 현상을 고발하고 인간내면에 대한 참뜻을 찾고자하는 의미로 분석된다.

I KNOW
WHAT YOU'LL
WEAR
NEXT SUMMER



<그림 7> Persoons, '97 S/S Derycke, L. & Veire, S. V.(1999). Belgian Fashion Design, die keure, p. 294. <그림 8> McQueen, '00/01 FW http://www.firstview.com/WRT/Wfall2000/ALEXANDER_MC_QUEEN/P126.html

2. 혐오성

혐오스러운 것, 불쾌한 것은 그로테스크가 탐닉하고 있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혐오성은 금기적이며 기괴한 이미지, 상충적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 요소의 결합, 자기손상 이미지 등 파괴적, 공포적, 정신분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강인성, 해방성, 진복성, 충격 등을 표현하여 기존의 서구 미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복식에 표현된 혐오성은 신체의 잔혹성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신체의 물리적 파괴, 신체 내부의 해부학적 표현, 신체 일부의 노골적인 표현으로 분류된다.

1) 신체의 물리적 파괴

'97 S/S 컬렉션에서 맥퀸은 이마에 상처를 내고 한쪽 눈 역시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신체를 보여주어, 우리 사회의 혼란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암시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의 상처는 고통과 사고에 의한, 또는 부주의에 따른 후유증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소이다. 그는 '00/01 F/W에 여성의 신체를 모욕하는 듯한

과격한 액세서리를 선보였는데, 아프리카 등의 미개 종족의 신체 뚫기를 이용한 액세서리를 과장된 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체를 훼손시킨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8> 맥퀸의 컬렉션은 성과 폭력(sex and violence)에 집중되어 패션 논평자들에게 여성 혐오(misogyny)자로 비난받았지만, 그는 아프리카의 여전사처럼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³⁸⁾

2) 신체 내부의 해부학적 표현

벨기에 디자이너인 올리비에 타쉬켄(Olivier Theyskens)은 '98/99 F/W 컬렉션에서 한줄기 밝은 빛, 빈 집, 창백한 모델, 여성 신체의 순환계를 묘사하는 등 섬뜩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³⁹⁾ 플라스틱재로 만든 캣 슈트(catsuits)는 인간의 심장과 연결된 동맥을 표현하여 마치 인체를 해부한 것 같으며, 죽음의 한가운데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표현하여 생과 사를 극적으로 대조시켰다.<그림 9>

맥퀸은 척추와 늑골의 형태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의상을 장식하였다. 내장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척추와 늑골의 해부학적 기능과 내용이 모두 부정되었다.



<그림 9> Theyskens, '98/99 FW Derycke, L. & Veire, S. V. (1999). Belgian Fashion Design, die keure, p. 202.

3) 신체 일부의 노골적인 표현

벨기에 디자이너 월터 반 뷔렌돈크(Walter Van Beirendonck)는 '96/97 F/W에 'Avatar' 컬렉션에서 노출을 통하여 성적인 자유를 찾고 기존의 억압된 욕구를 해체하여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재발견과 파행적 행위 언어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는 의복을 통한 남성누드를 표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97/98 F/W에 남성의 페니스를 사실적으로 프린트하여 누드의 충격과 그 이미지의 지적 본질(intellectual quality)을 결합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였다.⁴⁰⁾〈그림 10〉

패션에서 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이전에도 자주 등장하였으며, 성기에 대한 왜곡이나 악취미의 표현형태들은 세기말의 극단적인 병폐를 간접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0> Beirendonck, '97/98 F/W
Derycke, L. & Veire, S. V. (1999).
Belgian Fashion Design,
die keure, p. 203.

패션에서 혐오감을 주는 표현들은 잔혹성, 분열성, 섹슈얼리티의 불안정성과 함께, 자기 증오, 공포, 분노, 좌절, 고통 등을 투사한다. 이를 통해 금기시 되던 비천함을 고무하여 카타르시스, 쇼크효과와 함께 혐오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표현형태들은 인간존재 속에 밖으로 들어내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에 대한 자기고백과 자기발견의 해방적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희성

유희란 어떤 외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의 흥미 때문에 일어나는 심신의 자유로운 발동이며, 긴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 원시적인 마음 편안한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⁴¹⁾

쉴러(Friedrich Schiller)는 예술의 본질을 유희에 두었는데, 이러한 웃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미적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들을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웃음 뒤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병리나 인간이 가진 모순을 꼬집어냄으로써 충격과 의외성을 유발하여 그로테스크한 미적 효과를 제시한다.

패션에서의 유희성은 상식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의복을 왜곡·과장하거나 신체 일부분의 비정상적 과장 그리고 의복의 구성을 무시하여 신체를 기괴하게 형상화한 것. 추한 신체, 성의 모호함에서 보여진다.

1) 왜곡과 과장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패션에서의 새로운 혼성(hybrid)을 창안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흡수하였다. '02 S/S에 크리스찬 디올(Cristian Dior)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그의 작품은 중국과 티벳, 몽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지만 국적이나 시대 그리고 스타일에서 어떤 정의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타일과 룩을 한데 뒤섞어 환상적인 마술쇼를 보는 듯했다. 인체의 머리를 확대 과장시켜 비정상적인 이탈을 통해 유희적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그림 11〉

레이 가와꾸보(Rei Kawakubo)는 '97 S/S 컬렉션에서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의복 아래로 유선을 넣어 등과 앞가슴, 엉덩이와 배 등 신체의 각 부분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함으로써 실제 신체의 형태를 변형, 왜곡시켜 기형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뒤틀리고 일그러져 보이는 기괴한 신체가 제시하는

것은 비미학적(非美學的)이며 전통적 담론 내에서의 미의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복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왜곡·과장되거나, 신체의 일부를 과장시켜 우스꽝스러움을 제시하는 것 등은 인간과 의복사이의 소외된 결과이며, 기괴함과 유머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 이처럼 복식의 왜곡과 과장을 통한 유희적 표현은 고정되고 억압되며 폐쇄된 세계를 유동성과 개방으로 이끄는 그로테스크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Dior, '02 S/S <http://www.modanews.com/>
<그림 12> Red or Dead, '99/00 F/W http://www.firstview.com/WRTWfall99/RED_OR_DEAD/P025.html



2) 추한 신체

'01 S/S에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homeless 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버려진 쓰레기와 사물을 포장했던 페비닐, 그리고 구겨진 신문지 등 온갖 폐품을 모아서 만든 것 같은 더럽고 지저분한 의상을 발표하였다. 과장되게 부풀린 스타일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분방함과 유희를 보여주었다.

'99/00 F/W 컬렉션에서 레드 오어 데드(Red or Dead)는 유두 피어싱과 배에 붉은 색의 'Unique'라고 페인팅한 비만의 남자모델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12) 현대인들은 미적으로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날씬하고 체중감소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만 신체는 서구중심의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위배된 소외미의 부상으로 볼 수 있으며, 'Unique'함과 함께 신체적 매력에 결여되고 부자연스럽고 불쾌감을 주며 쓴웃음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3) 성의 모호

남성이 여성의 복식을 착장하거나 그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착장하는 것은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며 그로테스크함을 준다.

<그림 13>과 같이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착용하고 남성의 권위 상징의 기표인 수염을 장식한 형태는 우스꽝스러움과 부조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 같은 여장 남자를 드랙 퀸(drag queen)이라고 하고 남장 여자를 드랙 킹(drag king)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성애, 동성애, 성전환자와 달리 선택적인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McQueen, '03 S/S http://www.firstview.com/WRTWfall96/ALEXANDER_MC_QUEEN/P123.html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한 표현양식은 관객에게 단순히 웃음만을 제공하는 장난스러운 디자인이나 기묘한 스타일의 파격적이고 거리낌없는 의상과 분장으로 웃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그러한 의상에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사회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희성은 웃음 뒤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슬픔과 고독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풍자적으로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재미와 즐거움을 본질로 하는 유희는 사회 문화적인 어떠한 중압감, 즉 관습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자유를 느끼게 한다. 삶의 긴장 완화로서 심각하지 않은 것, 구속력이 없는 것 등으로

자유롭고 오락적인 재미와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지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이질성

그로테스크의 특성 중 이질성은 인간과 동물의 결합된 원시적인 형태와 인간과 기계적인 것의 결합이나 가상공간 속에서의 인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새롭고 독자적인 단일체로 혼합되거나 융합되어 이미 인정된 규범들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거나 전도시킨다고 볼 수 있다.

1) 원시성

고대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스팅크스 같은 인간과 동물의 복합체는 기괴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표출한다.

인간과 동물의 유기적 관계는 문학과 예술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의 의인화, 인격화는 우회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기능을 가진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The Cats」에서 보여지듯이 각기 다른 성격과 개성을 지닌 고양이들의 캐릭터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많은 등장하고 있다.

'97년 F/W 컬렉션에서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는 괴기스러운 새, 파충류 외 여러 동물을 혼합한 듯한 그로테스크한 의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뱀의 형상을 표현하거나 곤충의 머리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여 20세기 하이테크 문명은 원시동물 형상의 비정상적인 하이테크화로 새로운 공상의 세계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맥퀸(McQueen)은 '97년 F/W 컬렉션에서 실제 동물의 가죽으로 제작된 의상에 동물적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인간과 동물의 혼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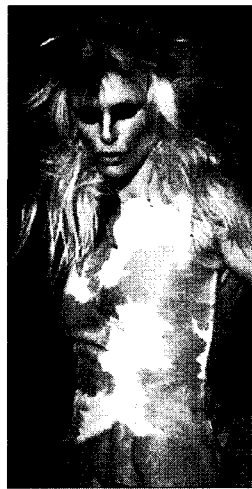
원시적인 형태는 아프리카의 부족이나 흑인들의 신체장식을 도용하는데 자주 등장한다. 아프리카 전통부족의 여인들이 목에 링을 채워 길게 늘이는 관습이나 토속적인 가면을 사용하여 주술적인 의미를 주는 디자인은 서구 백인 중심의 문화에서 소외되었

던 것으로 서구 사회의 새로운 미로 부상되었다. 문명화된 민족이 이해하기 어려운 미의 기준조차도 하나의 색다른 문화와 가치로서 서구패션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패션의 모티프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과 동물의 혼합된 이미지는 인간 존재 가치의 상실과 동물의 인격화라는 상반된 아이러니 속에서 모든 것이 혼성화되고 미분리된 세계를 통해 소외되고 억압된 생명의 존재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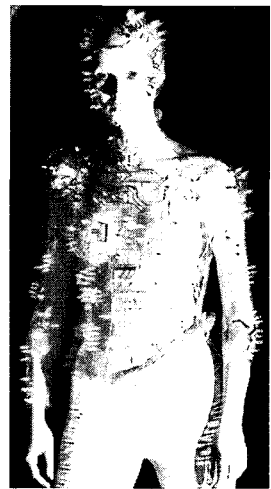
2) 가상성

가상성(virtuality)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상현실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 환경은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나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기술을 사용하여 현실세계의 모델을 가상세계에 구축하는 것이며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라고도 한다.



<그림 14> McQueen, '97/98 F/W

<http://www.firstview.com/WR/TWfall97/ALEXANDER/S001.html>











<그림 15> Givenchy, '99/00 FW

<http://www.firstview.com/WRTWfall99/GIVENCHY/134.html>

고도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왔지만, 이로 인하여 인간이 가상현실 속에서

<표 2> 1990년 이후 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그로테스크 특성	형성요인	외적 형식	내적 의미	대표 디자이너	대표 복식
악마성	죽음의 본능 세기말 현상 추의 미학 하위문화집단의 저항	-섬뜩한 오브제 -괴기스런 악마적 모티프 (마녀, 사탄, 드라큐라, 해골, 피, 문신) -고스룩, 에로그, 뉴로틱패션	죽음, 공포, 비극, 질병, 음울, 최악, 타락, 애도	McQueen Viktor & Rolf Akardius Theyskens	 
혐오성	하위문화집단의 저항 추의 미학 세기말 현상	-신체의 물리적 파괴 -신체 내부의 해부학적 표현 -신체 일부의 노골적 표현 (성의 표현)	잔혹, 고통, 가학적 기괴 비천함, 역겨움, 불쾌감	McQueen Theyskens Beirendonck Westwood	 
유희성	하위문화집단의 저항 추의 미학	-왜곡, 과장, 유머 -신체의 추한 모습 -성 정체성의 모호	개방 비정상적, 우스꽝스러움 풍자, 일탈	McQueen Galliano Gaultier Kawakubo	 
이질성	원시성 추의 미학	-반인반수의 형태 -미개민족의 신체장식	생명의 존재 인간존재의 가치 상실 소외민족	McQueen Mugler	
	가상성 테크놀로지의 발달	-인간과 기계의 결합 -가상현실과 사이버공간 -첨단 테크놀로지적 요소 -매탈릭, 빛과 색채 -인공적, 가상적	인간의 정체성 야기	McQueen Mugler Beirendonck	

과학적 허구와 합성하는 등 인간과 기계와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인간의 신비가 벗겨지고 해체되는 상황은 인간을 열등한 기계의 부품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비인간화를 수반한다. 인간과의 결합물로 탄생된 사이보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탄생시켰고 그러한 형상들은 그로테스크한 미학을 반영한다. 또한 현대 테크노 소비문화는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에 치장을 부추김으로써, 육체의 결핍을 테크놀로지에 의해 충족하게 하여 그러한 기계적 요소들이 패션에 표현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사이보그(cyborg) 형태는 첨단 테크놀로지 요소를 도입하여 반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것이다.

티에리 뮈글러(Mugler)는 '95/96 F/W 컬렉션에서 알루미늄과 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사이보그 슈트로 미래의 초인간을 표현하였으며, 또한 사이보그를 가동시키는 기계의 부품장치를 장착한 듯한 재킷을 표현하여 패션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McQueen은 지방시(Givenchy)의 '99 S/S 컬렉션에서 컴퓨터 부품 칩 모양의 무늬가 표현된 의상을 발표하기도 하고, 인간신체 내부의 혈관과 신경조직 대신에 반도체회로와 여러 전선가닥으로 구성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하였는데 인간이 기계부품으로 변환된 듯한 시각적 착시를 일으켰다.〈그림 15〉 오늘날 인공심장과 유전자 변형 등 여러 생체공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할 때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 살펴본 1990년대 이후복식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분류하면 위의 <표 2>와 같다.

IV. 결론

1990년대 이후의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현시대의 사회 환경적 불안요소와 함께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발상이나 독특한 창의력으로 과거의

그로테스크 이미지보다 더욱 더 자극적 요소가 가미하여 충격과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복식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체 인식과 복식의 구성, 제안 등에 있어 더욱 혼란스럽고 충격적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의복 자체에서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보다는 신체의 그로테스크, 특히 신체의 물리적 파기나 신체의 부분을 표현, 신체 왜곡, 동물이나 기계와의 혼합으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악마성, 혐오성, 유희성, 이질성으로 범주화하고, 1990년 이후 패션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마성은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Thanatos)과 세기말 현상을 배경으로 복식에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섬뜩한 오브제나 괴기스런 악마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충격적, 파괴적, 잔혹함, 공포감을 조성한다.

둘째, 혐오성은 신체의 물리적 파괴, 신체의 해부학적 표현, 노골적인 성의 표현으로 환멸감과 불쾌함을 유발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암시하는 것이며 인간존재 속에 밖으로 들어내기를 꺼려하는 금기(禁忌)에 대한 자기고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희성은 의복이나 인체의 형태를 왜곡·과장하고, 신체의 추한 모습, 성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비정상적이고 기괴함을 유발하는데, 이처럼 기묘한 패션은 비정상적 웃음, 풍자적인 웃음, 익살, 희극적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복식의 유희적 표현은 고정되고 폐쇄된 세계를 개방하고 유동적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질성은 원시성과 가상성으로 세분화되는데, 원시성은 인간과 동물이 결합된 형태나 미개 민족의 신체장식을 통하여 혼성화되고 미분리된 세계의 소외와 억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성은 첨단 테크놀로지 요소를 도입한 사이보그(cyborg) 형태·인공적·가상적·반기계적·비인간

적인 형태로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199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는 세기말적 분위기에 편승되어 더욱더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표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전개되어 인간의 삶과 현실 사회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 인간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정화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1990년대 무대의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은경 (200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관한 연구. 안양과학대학 논문집, p. 23.
- 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1981). Springfield: Marriam-Webster, p. 1002.
- 5) Adams, J. L. & Yates, W(1997). *The grotesque in art literature*, Cambridge: Eerdmans, pp. 5-6.
- 6) Thomson, P. (1972). *The grotesque*, 김영무 역(1986).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7-18.
- 7) 신창규 (1995). 뒤렌마트 희극의 근본 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0.
- 8) Thomson, P. *op. cit.*, p. 17, pp. 22-23.
- 9) *Ibid.*, p. 14.
- 10) 김홍희 (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나르시즘과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14.
- 11) Harpham, G. G. (1982). *On the grotesque*, Princeton University, p. 14.
- 12) gnosticism: 중세의 신비주의적 이단교도
- 13) Bynum, C. W. (1989). The female body and religious practice in the later middle ages, In *Fragments for a History the Human Body*, New York: Zone Books, pp. 170-171.
- 14) 임석재 (1997). 장식과 구조 미학: 불어권 아르누보 건축 I, 서울: 문예마당, p. 23.
- 15) 서영철 (2000). 포스트모던 세기말: 죽음(의 공포), 새한영어영문학, 42(2), pp. 455-487.
- 16) 이민선 (2000).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9.
- 17) Rucker, R. Sirius, R.U. & Queen, M.U. Mondo 2000, N.Y.:Harper Perennial, p.64; 이민선 (2000).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2 재인용.
- 18) Thomson, P. *op. cit.*, pp. 24-25.
- 19) Bakhtin, M. (1964). *Rabelais and his world*, pp. 47-51; Helene Iswolskytrans (1984).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30.
- 20) Thomson, P. *op. cit.*, p. 14.
- 21) Бахтин глазами метафизика // Диалог, Карнавал, Хронотоп: (1998), 1, с.139, 141; 변현태 (2001). 바흐친의 라블레론. 한국러시아문학회, 10(1), pp. 229-230 재인용.
- 22) Лосев А.Ф. (1973). *Эстетика Возрождения*, М., С.569, 592, 593, 변현태. 앞의 논문, p. 230 재인용.
- 23) Pietzker, C. Das Groteske. In: Best (Hg.)(Wie Ann, 10), S.85-102; 권선형 (2000). 사실주의와 그로테스크-빌헬름 라베의 소설 「포겔장의 서류들」 고찰. 독일문학, 73(1). 한국독어독문학회, p.5 재인용.
- 24) 김홍희. 앞의 논문, pp. 230-231, p. 218.
- 25) Heidsieck, A. (1969). *Das Groteske une das Absurde im Modernen Drama. Sprache und Literatur 53*, Stuttgart-Berlin-Köln-Mainz, S.17; 권선형. 앞의 논문, p. 4 재인용.
- 26) 임호준 (2000). 그로테스크 육체: 니에바와 알모도바르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서어서문연구, 17(1), p. 1.
- 27) 여홍상 (1995). 바흐친과 문화이론. 현대의 문학이론 24.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60.
- 28) Cramer, T. (1966). *Das Groteske Bei E. T. A. Hoffmann*, München: Fink, p. 26; 차제무. 앞의 논문, p. 17 재인용.
- 29) Thomson, P. *op. cit.*, pp. 27-79.
- 30) 차제무. 앞의 논문, p. 40.
- 31) Thomsen, C. W. Aspekte des Grotesken im, >Lazarillo de Tormes<, in: GD, s.181; 신창규 (1995). 뒤렌마트 희극의 근본 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4 재인용.
- 32) Thomsen, C. W. (1977). *Das Grotesk und die englische Literatur*, Darmstadt, S.10; 권선형. 앞의 논문, p. 4 재인용.
- 33) Thomson, P. *op. cit.*, p. 27.
- 34) *Ibid.*, pp. 24-25.
- 35) Vogue Korea (1998). 2, p. 82.
- 36) 뉴로틱 패션(Neurotic Fashion)은 '신경질적인'이라는 의미의 광고 용어에서 비롯된 용어로, 밝고 건경한 느낌의 모양이 아니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 37) Larson, B. 주홍근·이종전 역 (1989). *록음악의 사탄적 현상*. 서울: 예루살렘, p. 5.
- 38) Wilcox, C. (2001). *Radical fashion*. N.Y.: Victoria & Albert Publications, p. 50.

- 39) Derycke, L. & Veire, S. V. (1999). *Belgian fashion design*. Belgium: die keure, p. 230.
- 40) *Ibdi.*, p. 203.
- 41) 학원사 편집부 (1985). *철학대사전*. 서울: 학원사, p. 855.